

日本電氣協會 제80회 通常總會 개최

6월 6일, 成樂正 부회장 및 徐重錫 전무이사 참석

일본전기협회(회장 가와이 다쓰오·川合辰雄)는 지난 6월 6일 일본 도쿄(東京) 소재 오쿠라 호텔에서 제80회 통상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총회에는 대한전기협회 成樂正 부회장과 徐重錫 전무이사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2000년도 회무보고, 결산보고 및 잉여금 처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임원을 개선했다.

川合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유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종래의 틀을 초월한 고객확보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전기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지적하면서 “21세기는 지구의 환경문제와 에너지 자원 문제 등을 안고 있으며 전기사업은 이것을 스스로의 문제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획기적인 신기술의 개발 등 난제 해결이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崔洙秉 대한전기협회 회장(협회 成樂正 부회장 대독)은 축사를 통해 “일본의 전기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전기기기공업,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룩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특히 지난해 전력소매 자유화 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전기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향상을 이룩하게 되었고 전력수급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나라도 지난 4월에 1개의 수력원자력 발전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회사가 설립되고, 이어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시장거래를 통한 발전부문 경쟁시대가 열렸다"면서 "우리 협회도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부응하여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해 나갈 것이며, 현재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 및 전기기능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전력정보 통계와 분석에 대한 서비스 업무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두나라의 전기협회는 그 동안 친선교류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의 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옴으로써 양국 협회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전기업계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환경보전문제 등 범세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앞으로 두 나라의 전기협회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日本電氣協會 80년의 歷史

일본전기협회의 올해 통상총회는 80년의 한 획을 긋는 총회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일본전기협회의 전신은 1892년(明治 25년)에 발족한 '日本電燈協會'이다. 창업하자마자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면서 3년 후에 '日本電氣協會'로 개칭하였다.

大正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공황 등의 영향이 있었는데도 전력수요는 증가일로로 전국 각지에 전기사업이 연이어 설립되고 발·송전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경영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전기협회(東京), 구 중앙전기협회(大阪), 구九州전기협회(福岡)의 3개 지구 전기협회는 그 업무내용에 공통사항이 많고 사회적인 요청도 있어, 1921년에 사단법인 '전기협회'로 통합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중에 협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大日本電氣協會'로 하였으나 패전의 혼란에서 부흥으로 향하기 시작한 '47년에 사단법인 '일본전기협회'로 바꾸고 신시대를 향한 재도약을 하였다.

산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력부족이 현저해지고 거국적으로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기협회도 '전력은 나라의 보배' 운동을 실시, 경제부흥에 일조를 하였다. 그후 재편성이 이루어진 전기사업은 전 산업의 기반으로 견고한 체제를 갖추어 갔다. 이에 따라 전기협회의 업무도 경영문제, 기술조사 등 전기사업이 직면한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 활동범위를 넓혀 갔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지구환경 문제와 원자력 발전의 추진, 협력 등 새로운 업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전, 안전확보라는 공익과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